

나주시, '여성 경력단절 ZERO' 도전... 2026년 지원사업 추진

고용유지, 직장 문화 개선, 인식 확산 3대 영역 집중 추진

전라남도 나주시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역 여성의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경력단절 예방 인식 개선 강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부터 역량 강화까지 촘촘한 여

성 고용유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직장 내 고충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직무 적응 지원으로 재직 여성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돕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여성에 특화된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트렌드 전략 안내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직자의 직장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는 '같이하는 GO 100',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웰컴 투 투게더(Welcome to Together)', '취업자 역량 강화 PLUS' 교육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기업과 연계한 '직장 문화 개선' 사업 병

행을 통해 기업 맞춤형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ZERO 협의 테이블'을 운영해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또한 '워라벨 패밀리페스타'를 개최해 가족 친화적 지역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아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경력단절 예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여성들이 경력 중단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겠다"며 "나주가 여성 친화적 고용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 음식문화개선 홍보 캠페인 전개

전남 곡성군은 지난 13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군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5대 수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5대 수칙'은 ▲음식 덜어 먹기 ▲저염·저당 실천 ▲식중독 예방 ▲손 씻기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문화 행동 수칙으로 구성됐다.

이날 곡성군은 전통시장 상인과 군민들에게 음식문화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식품접객업 영업주와 이용객이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생 관리 방안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군은 이달 초·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을 통해 불철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위생등급제도 확대,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한 음식문화는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식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이정수 기자

완도군의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남도 실시 '2026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까지 군은 8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금일읍 주민자치센터가 공모한 사업은 주민과 함께 '안전한 이음길 만들기'다.

금일읍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일정항 인근 해안 도로의 난간을 도색하여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금일읍을 상징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8년 연속 공모 선정

금일읍, 주민과 함께 '안전한 이음길' 만들기 선정

하는 깨끗한 바다와 다시마 등 지역색을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관(官) 주도도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색 작업뿐만 아니라 안전 점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간 협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7년도에 완도읍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 고금면, 2021년은 보길면, 2022년은 신지면, 2023년과

2024년은 고금면, 2025년은 보길면, 청산면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거석 행정지원과장은 "8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것은 그만큼 군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열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 사업 선정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순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추가 지원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방문 신청

순천시는 지역 내 1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관내 영업장을 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5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준 등급(1~7등급)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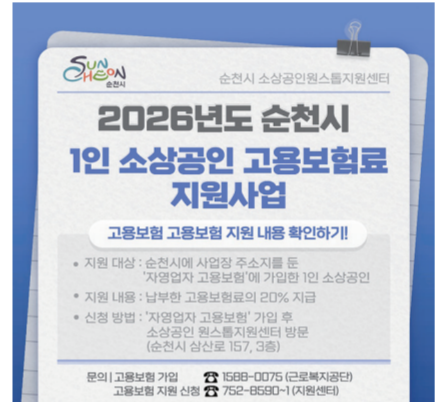
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고 있으며, 순천시가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복 신청 시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고려해 분기별 정산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2025년 지원을 받은 업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중이라면 2026년 사업에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



752-8590~1), 경제진흥과(061-749-573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흥군, 2026년 농촌진흥시범사업 본격 추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통해 4개 분과 22개 사업 대상자 확정

장흥군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농촌진흥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과 군 자체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과 작목별 대표 농가 등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개 분과, 총 22개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정 사업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농촌체험농장 기반 조성 및 육성 시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6차산업형 우수가공식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수요 맞춤형 장류종비 재배단지 조성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 △간척지 유기농 쌀귀리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화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목 육성 시범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시범 △감귤 국산 신 품종 저변 확대 기반 조성 시범 등 지역 여건과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올해 농촌진흥시범사업은 농업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 보급과 재배단지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지역 특화 소득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을 대폭 반영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기술 보급과 현장 중심 농촌지도사업을 강화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고 생태계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밀원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와 병해충 증가로 꿀벌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밀원 면적 또한 1970~80년대 4만 7,800ha에서 2020년 1만 4,600ha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

담양군, '밀원숲 조성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수분 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나 안정적인 밀원 공급 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전국에 연평균 약 3,600ha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했다. 올해부터는 이를 연간 4,000ha로 확대해

2029년까지 총 2만ha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공유림 활용 대단위

밀원단지 조성 ▲벌채지 연계 전략적 식재 ▲양봉농가 밀집 지역 개화 수종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지역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꿀벌 서식 기반을 회복해 양봉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